

보내는 사람

이 공 회

위원 중구 취권 4동 860~83 2/4

601-054

받는 사람



위원 중구 수림 2동 1-61  
(동원빌딩 5층)

(만주당 중구려구당)

위원장: 노무현 (위원)

601-032

노수희님께

노형 언니께 화답인가?

저, 좌천4등이 거주하는 이상화 특사  
일선 노형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유치 보낼 기쁨 끝에 간짜를 쓰는 느낌이라.

촉촉한 마음에 부촉한 구이 맛 편지를 씁니다.

사랑마다 주렁, 주렁, 풍어나는 노형의 이자와 신리가  
잘은 인생에 오륙도 심화 되어 많은 남은 조부께 가요  
사리, 촉박을 화시르나 화니 여러 축하를 드립니다.

노형!

편지 사리의 작곡, 이라고 알고 화답니다.

말을 수 있는 공준의 시회가 이 후에서 다시 살아  
나리라 믿으면서 활신의 벽을 허물도록 노력 합시다.  
노형의 여왕은 이 땅의 꽃다운 젊은 청년들을  
수 없이 다려 갔습니다.

이 편지 글을 피하여 정신을 회복한 화답으로  
진솔한 사랑의 크리스마스 합시다

노형, 열심히 화답으로 지능을 씁니다.

92. 5. 19

詩人 이 상 화 특사